



Image of form-숲 72.5x90.5cm Acrylic on canvas 2011

송해수미술상 수상 기념전  
**HAN, SOUNG-HEE**  
 한 성 희

KGK Gallery



한 성 희 HAN SOUNG-HEE

경남 창원성  
 영덕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및 초대전

- 1993 수목화단(부산)
- 1994 동방화단(영양)
- 1995 유출화단(부산)
- 1996 동서화단(마산)
- 1998 서인화단(부산)
- 1999 고려화단(영양)
- 1999 나무화단(서울)
- 1993 스페이스월드(부산)
- 1996 진화화단(서울)
- 1997 갤러리 현대(부산)
- 1999 부산정보대학 청우갤러리(부산)
- 2001 영민화단(부산)
- 2002 경희회 포(부산)
- 2003 영민화단(부산)
- 2006 영민화단(부산)
- 2006 마산아트센터(마산)
- 2006 진화화단(영양)
- 2006 피카소화단(부산)
- 2007 제주국제아트센터(제주)
- 2011 루미안갤러리 초대(서울)
- 2011 K갤러리 초대(부산)

그룹전

- 1977~78 Independents(전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78~83 부산미술제 초대전(신원회관, 부산)
- 1989 Hanga Annual 85(전일본)
- 제10회 Kanagawa 국제미술 Independents(Kanagawa 일본)
- 1988 한국현대미술가협회(전미술관, 서울)
- 1989 시인화단 39 "오늘 부산미술 내일", 전(시인화협, 부산)
- 글로벌미술관 개관기념 "80년대의 황금미술, 초대전(글로벌미술관, 서울)
- 한국 - 일본문화 2인전(이화아트, 동경, 일본)
- 1990 서울국제 문화교류KBS전(시상, 부산)
- 부산국제 문화대전(시인회관, 부산)
- 한국현대 미술가협회(전미술관, 서울)
- DADA GALLERY 기획 "영원과 일체의 구도전, (다다갤러리, 부산)
- 부산, 서울, 동경 관화 62년(다다갤러리, 부산)
- 1991 조선화단 개관 20주년 기념초대전(조선화단, 서울)
- 1992 서울현대 미술대전(시인회관, 서울)
- 1995 lo-A-from(전일본, 일본)
- 현대미술 개관기념 초대전(현대미술, 부산)
- 1996 서울문화재단미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아시아아트 96(ASIA)문화재단(문화회관, 부산)
- 1997 새창갤러리 기획 "민화소리전, (새창갤러리, 부산)
- 효양이전(롯데호텔 기획, 부산)
- 1998 부산문화재단(공주미술관, 부산)
- 부산문화가협회(전송화갤러리, 갤러리월드, 부산)
- 1999 부산시립미술관 7주년 "별편 판화: 양상숙의 시공간,
- 2000 오늘의 판화 2000(부산문화회관)
- 제1회 제주국제문화제(제주)
- 부산문화가협회(전공경문화회관, 부산)
- 제2회 부산 광주미술교류전(광주)
- 영동환경미술제(공주미술관, 부산)
- 꽃대화단 개관 5주년 초대(롯데호텔, 부산)
- 부산현대미술가협회(전문화회관, 부산)
- 뒤로 남는 도량전(피카소화단, 부산)
- 2001 "부산형상미술의 한 표정", (공주시립미술관, 광주)
- 2002 경희대유우 개관기념 초대전 "의식과 감성의 표정", (경희대 유우, 부산)
- 부산문화가협회(전시인회관, 부산)
- 국제현대미술제(성신아트홀, 창원)
- 부산비엔날레 기념 판화작가 초대전(사정전시실, 부산)
- 2003 부산현대미술가협회(시인회관, 부산)
- 부산문화가협회전
- 부산국제문화제(사정전시실, 부산)
- 전국 15개 시도 연합 초대전(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 부산, 광주 현대미술가협회 교류전(조선대학교 전시실, 광주)
- 부산현대미술가협회: 영민화단 기획(롯데호텔전시실, 부산)
- 2004 전국예술 6대 권역시 및 제주도 작가 초대전(문화예술회관, 창원)
- 원질 한국미술 경기 여름미술축제(재민문화회관)
- "가짜씨의 외출" (한화(피카소화단, 부산)
- "향에 건네는 디어전" (한화(예술수도문화회관, 부산)
- 부산국제문화제(사정전시실, 부산)
- 부산, 대구문화가협회 교류전(시인회관, 부산)
- 국제신문(포지유클럽) 초대전(대안사발대안, 대안)

해운대우체국

요금별담

- 2005 현대판화의 시각 전(대구문화예술회관)
- "희름 쓰디" 부산현대미술가협회(영민회관)
- 롯데호텔 부산문화제(영민회관) - 오아시스를 만나다 -
- 롯데호텔 부산문화제 개최 10주년 기념 2006 Busan Late Art Fair
- 판화 3인전 조부경 갤러리 초대 2006
- 2005 영민화단 초대전
- 2006 경남, 부산, 대구 유영 문화인전(USA갤러리 및 앞)
- 2007 Ambassador 개관기념전 출품
- "물줄 빌라드(롯데) 전 출품(갤러리화인 기획전)
- 해운대 기획전시 출품
- "Explosion(일일기)" 전 부산현대미술가협회(부산해협박물관 박람회전시실)
- 부산문화가협회(재민문화회관)
- 2008 부산현대미술의 지평선(부산문화제전시관) 출품
-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미술전
- 부산미술 80년, 부산의 작가(영민 출품)
- 한-노, 초대전(피카소화단)
- 2009 신세계 갤러리 오픈기념 지금부터 전 출품
- ART Innerem 2009년 출품(세스갤러리)
- 김재선갤러리 오픈기념전 출품(서울)
- 부산문화가협회전
- 부산국제현대미술전(부산문화회관)
- 부산국제현대미술전(부산문화회관)
- 배이정 "쇼크" (보세(보세미술관) 비어장)
- 2010 ART EDITOR(부산 엑스포)
- 부산, 제주 판화(일일 "민화외출" 전 출품(제주 현대미술관)
- 2011 부산현대미술의 아페르(재민부산미술회관)
- 부산문화가협회(소공초대전(부산 미술관(미술관))
- 반지없는 미술전(영민 영민미술관)

수상경력

- 1984~86 부산미술대전 연 3회 특선
- 1988~89 대한민국미술대전 3회 입선
- 1988 공간국제현대미술전 개작 수상
- 1988 공간국제현대미술전 우수작 수상
- 1987 부산미술대전 대상 수상(문화공공관)
- 1988 제1회 동아미술제 특선
- 2001 제 1회 오늘의 작가상 대상 수상
- 2011 제 7회 송해수미술상 수상

작품소장

그랜드호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의료원, 영덕대학교 박물관, 선원호텔, 기암은행 덕양빌, 지평, 유수인아파트 조영광 선지

부산미술협회 판화분과 회장,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한국문화가협회, 부산문화가협회, 부산시립미술관 작품 추천위원

2011. 12. 2(Fri)~12. 18(Sun)  
 Open: 2011. 12. 2(Fri) pm 6:00

612-8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1491-3  
 Tel : 051.744.8669 Fax : 051.626.7376  
 E-mail : kgallery@never.com



본 전시는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원금을 일부 지원받아 전시됩니다.





Image of form-솔 162x97cm Acrylic on canvas 2011

## 한성희의 예술세계

70년대 한국 문화의 1세대로 부산지역을 근거로 전문 문화가의 길을 평생 걸어오고 있는 한성희(1950-)는 수많은 이미지와 형태를 주로 자연적인 소재와 자연을 어긋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판화기법의 실험적 접근과 작업을 시도해 끊임없이 35여 년의 작업 인생을 곳곳하게 보여주는 작가이다.

판화에 입문하여 다양한 소재를 담아 표현상 구상과 추상은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개인 작가로서는 국내 최초로 대형 프레스기판 작업실에 도입하여 활동한 이래 1983년 첫 개인전으로 동판화전을 개최하였고 1993년 6회 개인전까지 동판화전을 지속했으며, 1996년 개인전부터 콜리그래프와 석판화 등의 기법이 더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후 개인전에서는 열보상기법과 기존의 매체(일지화보 등의 인쇄매체)를 활용하는 것까지 형식과 기법에 구애 받지 않고 두루 섭렵된 작품들이 선보였다. 최근작에서는 회화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지만 판화를 이미 회화적인 수단(메디이션)을 내지 않는 방식에 근접한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는 작가로서 판화기법을 활용한 회화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한자도 꾸준히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한성희가 오랜 세월 'Image of Form'이라는 주제로 작업해 온 시기적으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독특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밑 속에 다양한 소재들에 대한 최대한 감성을 절제한 상당한 필치들 들 수 있다. 한성희의 기존 '형태의 이미지'라는 주제가 각기 다른 형태들간의 부조화 속에서도 한 화면에서 서로 부딪히는 듯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듯한 긴장감은 기존 작품들에 대한 커다란 해석이라 할 수 있었다. 수수께끼와도 같은 회화의 다양한 이미지들은 판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회화적인 분위기로 표출되어 최근 선보이는 회화작품의 의도와 상충하여 만약 같은 회화, 회화 같은 판화로써 역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절제한 욕망의 이미지 표현은 동판화라고 하는 재료의 작업과정에서 걸러지고 순화되어 상징적인 몇 가지 단서만을 남긴 채 보는 이로 하여금 스텝크스의 수수께끼에 직면한 오이디푸스가 될 것이라 아니라 범범한 인간들처럼 수수께끼에 현혹되어 사자의 흉을 가진 여인 스텝크스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두고 몰입이다. 한성희 판화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것은 Deep Etching이라 하여 '솔' 시리즈 작품에서 깊은 심연이나 이러한 두터운 대기층 느껴져 해주는 이 기법은 작가의 동판에 대한 몰입에 전착하는 최후적 행위라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솔'이 가지고 있는 한성희의 교감은 자연과 고감하는 인간의 상징적인 표상이 되었으며, 1996년 개인전에서 보여주었던 식물과 혼연(渾연)이 된 인간의 군상들이 완성된 솔의 이미지로 형태를 갖추기까지 작가의 오랜 세월 쏟아내는 고뇌의 흔적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작품들이 최근의 작품들로 승화된 듯 하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간 사유와 행위를 거쳐서 아름답게 순화되는 것이다. 이에 한성희의 초기작품에서부터 최근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오는 소고(小考)는 이러한 인간의 사유와 판화라고 하는 고된 노동의 작업 과정을 거친 성스러운 순례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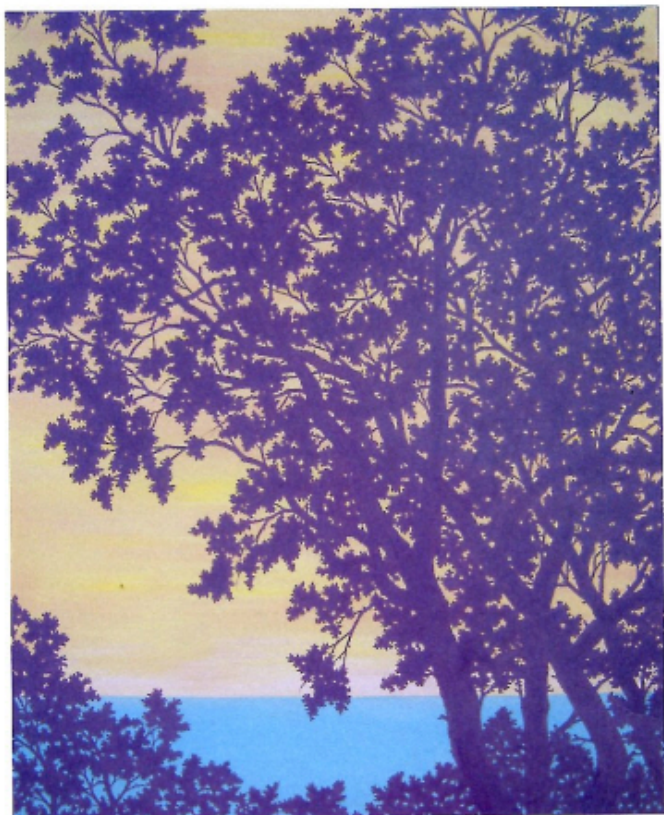


Image of form-金 72.5x90.5cm Acrylic on canvas 2011



Image of form-金 53x45.5cm Acrylic on canvas 2011



Image of form-金 53x45.5cm Acrylic on canvas 2011



Image of form-金 100x70cm Deep Etching+Embossing 2009



Image of form-金 100x70cm Deep Etching+Embossing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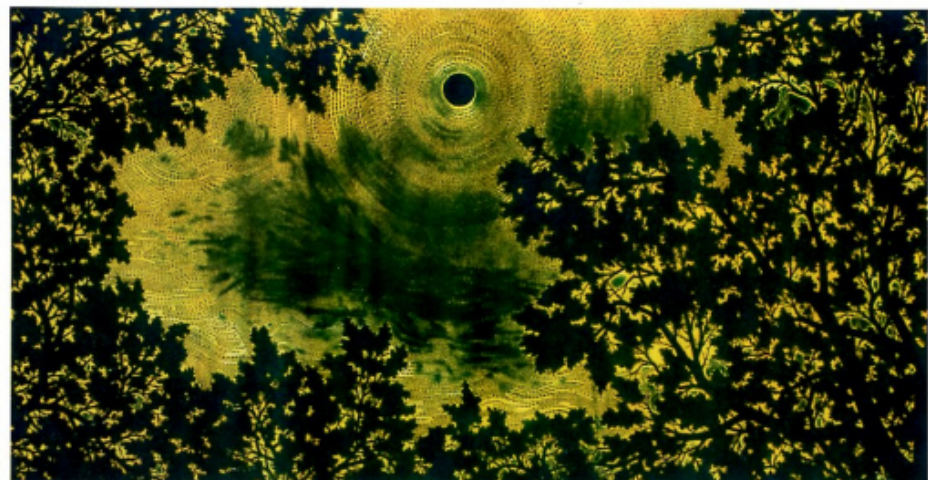


Image of form-金 82x130cm Deep Etching+Embossing 2009